

## 김혜식 선생님 녹취록

#.

조주현

1:35:39

저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질문1 자막

자막 : 김혜식 교수님과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

조주현

1:35:54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레 워크샵 해서 이제 발레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선생님 수업을 접했는데.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었죠.

그런데 그때 이 분 수업을 이제 워크샵이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듣는 워크샵인데. 한 번 몇 번에 이제 세네 번의 수업을 받았는데. 그냥 그냥 바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분의 수업은 그냥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분에게 찾아갔어요.

이제 이분이 김혜식 원장님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이제 저는 잘 몰랐을 때죠.

어리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더 배워야 되겠다 해서 가서 저 선생님 수업을 더 받고 싶은데요 했더니 선생님이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근데 나는 여기에 한국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너 혼자만 받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좀 그룹해서 모아오면은 내가 수업을 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연습실도 네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하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수업을 엑스트라 수업을 받고 그때 엑스트라 수업을 받을 때 이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연습실은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김혜식 원장님이 연습실 이렇게 또 이렇게 렌트해주셔서 빌리셔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모르게 이 선생님 수업은 너무나, '이 선생님 배우고 싶고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선생님이었고 또 흔쾌히 또 그거를 받아주셨고 그게 첫 인연인데. 그러면서 그 엑스트라 수업을 받았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계속 손편지로 주고받았어요.

저희 이제 제가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수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소통하면서 편지로 소통을 했던 차에 제가 그러면서 소통을 하다가 저를 고3 때 다시 만났어요.

조주현

1:44:03

그거 힘들던데 그게 힘들 그게 사실은 근데 사실 김혜 선생님은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사실 김혜식 선생님은 사실 어머니라 그래야 맞을 것 같긴 한데 왜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와닿을 만큼 든든하시고. 든든하단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저한테 신뢰를 주신  
분인데 그 신뢰가 없는 신뢰보다는 저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꺼내서 알려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는 어떤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라 그 힘이 정말  
어떤 또 아주 세심하게 배려도 있는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 방향성을 던져주시는 분이라 아버지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 1. 생애사1 : 성장기 및 수학기 (1942 - 1965)

조주현

00:00

원장님 저 보이세요 진짜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카메라, 카메라 설치랑 이렇게 이게 원장님  
목소리랑 통화 내용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김혜식

00:20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조주현

00:22

네 원장님 약간 뒤로 가서도 될 것 같아요. 살짝 살짝 뒤로 이렇게 하면 너무 보기 이거 보기가  
더 좋지 않아요 지금 정도가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조주현

00:45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예술과젠더라는 저희 학교에 연구소가 있는데 가장 좋은  
그러니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제 아티스트이면서 교육자를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데 사실은  
원장님을 연구하신다 해서 제가 오히려 덕을 보는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같이 옛날 시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저 사실 어제 그제 지난주 해가지고 저  
19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김혜식

01:18

내가 자격이 되냐

조주현

01:19

충분하죠 원장님 그래서 저희 진짜 저랑 원장님이랑 만난 게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김혜식

01:28

그래 그게 몇 년도냐

조주현

01:31

1988년 이거 다 제 나이 공개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처음 제가 원장님 수업 듣고 저는 그때 처음 원장님 뵈거든요.

그때 뵈고 나는

김혜식

01:48

아무튼 너무 기특했어 또 와서 수업을 택하겠다고 그래갖고 어레인지 해갖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수업하고 그게 내 첫 번 수업했다.

한국에 나가서 맞아요.

조주현

02:01

그동안은 진짜 외국에서 활동하시고 미국에서 활동하시다가 처음 그때 1988년에 처음 와서 수업하셨죠?

김혜식

02:10

그렇지 이제

조주현

02:12

원장님 제가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 이렇게 저도 사실 원장님한테 옛날에는 내가 로열발레스쿨 갔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활동했다 했는데 원장님 이렇게 원장님이 이런 이제 지나오신 길을 이렇게

보니까 궁금한 거를 이렇게 여쭙보면 원장님이 조금 더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 게 원장님 로열발레스쿨이 그때 사실은 이게 몇 년도에 1966년도잖아

김혜식

02:50

내가 한 게 66년도

조주현

02:53

그렇죠. 66년도인데 66년도에 영국은 정말 발레로 하면은 정말 약간 인종차별도 있을 때고 우리나라 국력도 정말 사실은 지금의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로열 발레 스쿨로 가지게 됐어요

김혜식

03:13

내가 그러니까 이제 발레를 하면서 한계를 좀 느꼈어. 그래갖고

조주현

03:24

한국에서 발레하면서

김혜식

03:26

그때 누레예프가 망명을 했잖아. 러시아에서 그래갖고 로열발레로 갔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성공회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회가 영국 교회야. 성공회가.

조주현

03:44

우리 여기 지금 명동에 있는 우리

김혜식

03:47

정동에 있는 성당 그래서 내가 나는 영국을 꼭 가야 되겠다.

그때 영국 영사관 대사관을 임성남 선생님이 잘 아셨어.

그 선생님이 그쪽 계통이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러시아 가는 볼 수 없었고 또 영국 것도 어떻게 봤다면은 그쪽에서 초대를 해갖고 우리가 가서 공연도 하고 영상도 보고 그때 마고트 폰테인이 하는 걸

조주현

04:17

영국에 가서

김혜식

04:19

어 영국 대사관 집에 가 갖고

조주현

04:22

대사관에서

김혜식

04:24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나는 꼭 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나 마고트 폰테인을 너무 내가 존경해. 왜냐하면 그분의 생활이나 모든 게 그리고 그분의 마음, 익스피리언스 아무튼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조주현

04:46

예술가로서 정말

김혜식

04:47

꼭 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때 상황에서 내가 갈 수가 없지.

한국이 얼마나 가난해. 그리고 또 비행기표 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있는 중에 그러나 '나는 꼭 가겠다'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실은 내가 외국에 가고 싶었어. 그때는 미국이었지 그 때문에 아는 게 어머 근데 겁이 나더라고 도저히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이가 조금 들고 그러면서 정말 계속 노력을 하는 순간에.  
이화대학을 다니면서 근데 이화대학도 그때는 안 가려고 그랬지. 내가 발레만 하려 그랬지.

조주현

05:29

네

김혜식

05:30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 하니까 이제 또 일에 시험을 쳐갖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나는 내가 발레만 하는 게 꿈이었는데 가니까 너무 수업하는 게 많았어.  
농구, 배구...

조주현

05:50

체육학가니까

김혜식

05:53

체육 계통 뭐. 아무튼 너무 그래서 내가 나는 여기 정말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419가 났어.

대학교 419가 나서 수업도 하다 말고 그냥 그때 막 1학년 들어갔을 때야 입학 그래갖고 집에  
왔지 걸어서 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때 1학년은 조금 나가긴 나갔어.

1학년을 내가 다녔지 갔어. 그런데 그때 국립무용단이 생겼어요.

임성남 선생님, 김백봉 선생님, 송범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하셔갖고 그때는 발레단 한국무용단이  
아니라 무용 거기에 또 내가 멤버가 됐어.

그렇게 되니까 어머 가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 '어머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대학에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한 학기를 안 갔지 거의 점수가 안 나와

조주현

07:07

농평이 학생이셨네요.

김혜식

07:10

그래. 그래갖고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 과목을 밀고 이제 연습하러 갈려고 과목을 밀고 있는데 누가 “야 이놈아” 그래 그게 한성일 교수셨어 그때

조주현

07:26

한성일 교수님 이화여대

김혜식

07:28

이거 이놈아 너하고 같이 가 그래서 나를 학교로 데려갔어.

대학을 이래 그래갖고 "니가 졸업을 하고 그래도 이 대학에 뭐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학교 정신 차려서 학교 다녀라."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다녔지.

조주현

07:50

"학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겠네요.

김혜식

07:52

그렇지. 그래갖고는 어 그래서 이제 임 선생은 공연마다 다 하고 그러는데 419하고 그게 419 혁명인가 516

조주현

08:05

516인 것 같은데 그래서

김혜식

08:07

한국의 우리나라의 오케스트라, 발레, 한국무용 아무튼 뭐 다 합창 다 해서 장충 체육관에서 516 혁명 공연을 했어요.

그때 임성남 선생님이 서울예고 무용단 합쳐갖고 유관순 혁명에 관한 무용을 했어요.

참석자 3

08:32

그래서

김혜식

08:33

그때 나는 유관순을 시키셨어. 그래서 내가 기대 들고 이렇게 뛰어나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조선히텔 가든에서 리셉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리셉션에서 박용구 선생님께서 "저 김혜식 양이 정말 재능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김혜식 같은 사람은 키워야 된다." 하셔갖고 그때 거기 김종필, 국무총리인가 보다.

김종필 씨가 오시고 아무튼 유지 정부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조주현

09:12

아

김혜식

09:13

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하셔갖고 그때 그 자리에서 나를 이제 스폰서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김혜식

12:47

김종필 찾아가려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또 그 댁을 찾아갔더니 그냥 자동차 타고 나오시더라고. 출근하려고 그래갖고는 비서를 시켜갖고 해서 내가 장학금을 받았고 비행기 표 하고 뭐 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인가 걸려갖고 수속도 그때는 뭐 주사 맞고 예방주사 맞고 가야 되는데 나는 안 맞고 갔어.

그래갖고 9월 며칠이나. 그래 그래서 이제 영국을 갔지.

조주현

13:20

원장님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원장님 근데 부모님이 발레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조주현

14:21

그러면 그러면 원장님은 발레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김혜식

14:27

발레를 내가 이제 6.25 때 이제 피난 가서 부산 사범학교 나왔거든. 내가 초등학교 그래서 이화여중 시험을 보러 서울에 우리 아버지는 그때 부산에 해운청장 하셨지 그래갖고 내려와 서울에 와갖고 이화여중 시험을 쳤어요.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얼마 안 있으니까 무용관을 뽑더라고.

그래서 무용관에 갔지. 가서 했더니 이제 그때 파조씨라고 계셔 파조 이호순 선생님이 무용 담당이고 그래서 무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김백봉 선생님도 오시고 강선영 선생님도 오시고 또 한영숙 선생님도 오시고.

조주현

15:17

대가들은 다 오셨네.

김혜식

15:19

파조 이호순 선생님이 굉장히 발이 넓으셔갖고 그때 임성남 선생님께서 발레 클래스 했어. 그랬더니 파조 이호순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 "혜식이 너는 발레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발레를 나도 마음에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 사촌언니 김양식 시인이시지. 언니가 그때 이대 영문과 나오고. 언니는 음악 공부를 하고 싶은데 큰아버지가 못하게 했어. 갖고 '야 혜식이 너는 니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고 나를 끌고 임성남 연구소를 찾아간 거야. 이화여중 때 1학년 때 그래갖고 그때부터 임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면서 열심히 밤새고 하고 그랬어.

## 2. 생애사2 : 활동기 (1966-2011)

### 주제사1 : 예술가로서의 삶

#.

조주현

16:04

그러셨구나. 원장님 그래서 이제 저희 다시 이제 영국 로열발레스쿨로 와서. 저 궁금한 게 거기 이제 그때 이제 영국 로열 발레스쿨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서 원장님 그때 몇 살이셨죠?

김혜식

16:23

나는 나이가 많으니. 내가 그 어떤 면에서는 내가 요새 아이들같이 열다섯, 열여섯 어릴 때 가면 아마 끝까지 못 잊었을 거야.

그 시절에는. 근데 나는 벌써 성숙했잖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별은 안 받았어, 내가.

조주현

16:45

어떤 게 어려웠어요? 어떤 게 속상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거기 가서 속상하실 때

조주현

16:54

우선은 라이프 우선은 라이프가 어떤 부분인가요?

김혜식

16:59

거기는 거기는 들어가면은 이 발 조사하고 다 해. 나이 먹은 나는 그때 나이 먹은 사람이지만 거기서 그렇지만 나는 '내가 제대로 된 발레를 배웠나'가 가장 궁금했거든.

정식 발레를 배웠나 그래갖고 이제 뭐 반 조사하고 오더니 오케이 오케이 하고 또 내가 한국에서 공연한 사진도 보내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발레 클라스로 들어갔는데. 나를 처음에는 하이 레벨에 넣지 않고 세 번째인가 어디에 넣었어.

조주현

17:40

전체가 몇 레벨이 있어요? 거기가 전체가 몇 레벨이 있는데 세 번째 레벨로 들어가셨어요  
6레벨까지 있는

김혜식

17:47

으면은 인터... 뭐라 그러지

조주현

17:53

인터미디어?

김혜식

17:54

미디어, 인터미디어

조주현

17:56

중간 레벨 정도로 가셨구나

김혜식

17:58

그렇지 근데 내가 또 한국에서 열심히 했잖아. 그러더니 그다음에 나를 옮기느라고 상위 레벨로

조주현

18:10

고급 레벨로

김혜식

18:54

그래서 나는 그때 스콜라십 받아서 갈 때 나는 그랬어.

영국 가서 한번 보고만 오는 것도 내 소원이다. 그럴 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대 다니면서도 내가 한양대학교 강사로 나갔고 김옥진 선생님이 계셔. 우리 선배 이화대학 나를 너무 이뻐하시고 그리고 거기 강사로 나오고 내가 서울예고도 강사로 하고 다니면서 이대. 그래갖고는 그러니까 나는 다시 돌아가는 걸로 돼 있었어.

내가 그러면 내가 한양대학의 교수로 다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어머 가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춤을 추다 보니까 '어머 내가 왜 지금 가리켜야 돼. 나는 춤을 춰야 되겠다.' 그게 내 소원이었거든. 그래서 한국에다가 편지를 했어.

정부에도 편지하고. 동아일보사 김상만 회장님한테도 편지하고 "저는 지금 더 춤을 추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1년이 지나면은 마지막 방학에 시메스터(학기) 끝나면은 거기에 정원 무용수를 뛰라고 그러지.

조주현

20:12

그렇죠 오디션

김혜식

20:13

오디션 그러니까 수업을 이렇게 보러 와.

조주현

20:18

거기서 발레 단원들을 이제 픽업하는 거죠. 발레 단원들을 뽑는 거지.

입단 제의를

김혜식

20:26

그래갖고 우리 수업에 쥬릭 발레단(취리히 발레단) 니콜라스 베리오조프

조주현

20:33

베리오조프가 니콜라스 베리오조프가 그 당시에 주립 오페라 발레단장이 굉장

김혜식

20:41

발레단장 슈투트가르트 하시다가 이제 주릭 발레단장 그분이 유명해.  
그래 그래갖고 했어. 근데 그때 이제 오로라, 슬리핑 뷰티 그것을 올릴라고 했거든.  
근데 워낙 뭐 잘하진 못했겠지만 나는 그래갖고 끝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  
잠깐 보자고,

조주현

21:10

베리어조프한테 나는 정말

김혜식

21:12

나는 그때 주릭이 어딘지도 몰랐다. 그래갖고는 너무 황당했어.  
너무너무 황당했어. 근데 사실 거기에 관해서 영국 애들도 못 가지.  
오디션에서 뽑힐 아이들이 몇 명 없어 다.

조주현

21:29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혜식

21:33

그래서 내가 주역으로 간 거야. 그래 한국에다 편지를 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주릭발레단의 오퍼를 받아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동아일보사 이사장 회장님이 "네가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다.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놓이더라고.  
왜냐면 스콜라십 받아 봤는데 한국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래서 주릭에 있게 됐지.

김혜식

23:03

그 사진이랑 보냈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게 어머 그래갖고 내가 로얄발레단... 너무 열심히 했다.  
근데 내가 가장 부족했던 게 알레그로였어. 알레그로는 한국에서는 알레그로. 빨리빨리 하는.  
한국에서 그거 안 가르쳤어.

조주현

23:25

당시에는 그랬죠.

김혜식

23:27

아니 로얄 발레스쿨 끝나고 과외를 저녁에 에를 에디슨이라고 해서 유명하셔. 그분 스테디에 가서 그분한테 배웠지 그랬더니 또 그분이 너를 너무 이빠해.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혜식' 그러면서 소시지도 사주고 그랬어.

아무튼 그래갖고 내가 습득을 했지 알레그로를. 노력을 많이 했다.

조주현

23:50

그러니까요. 학교 수업도 다 하고 남들은 그 시간이 사실 한 6시, 7시 되었을 텐데 그 외에 또 수업 받으시는 노력을 남들의 2배, 3배로 하셨네요.

진짜. 원장님 주립발레단 가서는 어떠셨어요?

김혜식

24:11

주립발레단 갔더니 우선 니콜라스 베리오조프 단장이 너무 인간미가 있고 나이가 그때 연세가 그분이 거의 60 되지 않았나

조주현

24:24

그렇죠 나이 있으시죠 그렇죠

김혜식

24:26

너무 발레단이 클래식과 컨템퍼러리 그리고

김혜식

24:32

믹스 프로그램 ,그런 거를 그때 하셨어. 그분이 뭐지 유럽 발레단 새로 생긴

조주현  
24:46  
어디 어디

김혜식  
24:47  
누구지. 저,저 러시아의 유명한 유럽 가서

조주현  
24:54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누구 누구 얘기하시는지

김혜식  
24:57  
누구지 그분

조주현  
25:02  
근데 어쨌든 그분이 굉장히 클래식도 하면서도 약간 컨템퍼러리한 이 시대에 동시대성 있는 발레도 잘 섞어서

김혜식  
25:10  
유럽 안무가들 데려오고 그치 본인이 본인이 로열 페스티벌 발레, 여러 발레단의 안무를 많이 셋업을 하셔서 호두깨기 인형, 백조의 호수 다.

조주현  
25:24  
원장님한테는 완전히 그런 진짜 사실은 사전에 남을 만한 유명한 안무가잖아요.  
그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나 완전히 신세계였을 것 같아요. 주릭 발레가.

김혜식  
25:38

그래 근데 나를 너무 아무튼 이뻐하셨어. 이렇게 수업하다가도. 뭐니 로미오와 줄리엣 할 때도 왜 궁전에서 따당따당따당따당. 그분은 크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셔.  
니콜라스 베리어조프는.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그래갖고 거기 있을 때 노래예프하고 스카우트 프리마 마르시아 하이디

김혜식

26:10

초청해갖고 백조의 호수 했고. 그때 내가 파트트로아 빠져 들어와

조주현

26:15

네

김혜식

26:16

파트트로아 아무튼 나를 이뻐하셨는데 그리고 거기 가니까 정말 호숫가에 극장이 있지. 점심시간에 나가서 뭐 이렇게 걸을 수 있지. 너무 좋았어.  
너무 평안하게 살았는데 주위에서 우리 우리 오빠랑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동생이랑 있으면서 "요새는 출세를 하려면은 예술가는 뉴욕을 가야 된다. 뉴욕에 가서 뭘 해야지 거기서 한번 오래 해야 이제 그렇다."  
근데 나는 너무 행복했어. 쥘릭에서 정말

조주현

26:58

어

김혜식

26:59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옮기는 것도 좋겠다."  
내가 발전을 위해서는 뉴욕에 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 오빠한테 얘기해갖고 우리 오빠가 비행기표 보내주고 뭐 해갖고. 우선 LA로 갔지 LA 근데 우리 집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에 가길 원했어.  
내가 왜냐면 LA에서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가 않았어.  
거기 있는 무용수들이 우리 발레단에도 와 있었어.  
쥘릭에. 근데 보니까 그저 그랬어. 그래갖고 아니다.



나는 뉴욕을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동생 남편이랑 위협하고 흑인이 많고 뭐 어찌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도 그때 주릭에 우리 발레 그 뭐냐 초청 초청 해라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조주현

28:02

게스트 티처

김혜식

28:03

마담 마담 텔레, 텔레아스방은 아니고

조주현

28:11

어쨌든 유명하니까

김혜식

28:13

그분이 오셔갖고 하면서 그분이. “내가 뉴욕을 가니까 난 뉴욕에 산다.”

그분이 메트로폴리탄 발레단에도 있었고 러시아 분이야. “네가 오면은 내가 비행기 나가서 다 픽업 되고 거기를 내가 안내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용감하게 갔지. LA 한 2주 있다가 떠났어.

조주현

28:34

그분은 왜 그렇게 원장님을 도와주셨을까요? 마담

김혜식

28:38

펠레포스카 이름이 펠레포스카. 돌아가셨겠지, 지금은. 마담 너무 좋으셔.

그러면서 날 보고 ABT 발레 스쿨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유명한 선생님들이 온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라. 그래서 에이비티 발레스쿨을 간 거야.

그때 에이비티 발레스쿨이지만 거기는 프로페셔널들이 왜 프로들이 택하는 거 예전에 너도 해봤지만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선생님을 택하라.

그래서 마담 펠리야스 라베 헝가리분이지. 키가 조그맣고 무서워. 무서워.

조주현

29:25

무서워요? 그분 어떻게 무서우셨어요?

김혜식

29:31

택했어 들어갔어. 근데 내가 이제 들어가면서 나는 우리 반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있었고, 이걸 했고, 또 디렉터가 뭐냐 추천서

김혜식

29:47

추천서도 써주시고 아무튼 그랬어. 그랬더니 나를 유심히 그분은 들어가면 너는 여기 너는 우리 어디 서라는 거 다 바도 정해줘.

조주현

29:57

클래스 안에서

김혜식

29:59

그리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야단치고 소리지르고. 근데 너무 친절하셨어.

조주현

30:05

애정을 갖고 가르쳐 주셨구나.

김혜식

30:08

그분 수업을 클래스로 이제 하고 있으면서 나는 내 욕심은 ABT가 욕심이었던거든.

그때 ABT가 리스트 다일이다. 주위에서도 그런 키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데 ABT가 서머 투어를 했어.

그러니까 ABT가 없더라고. 근데 그게 8월 말인가 내가 7월 달에 뉴욕을 갔는데... 왔대.

발레단이 그래갖고 나 아이고 뭐지 그때 디렉터가 내가 이름이

조주현

30:46

ABT디렉터 아니면은 르그랑 발레단...

김혜식

30:50

디렉터한테 연락을 해서 ABT. “내가 너를 한번 만나고 싶다.

오디션도 하고 싶고.” 그랬더니 우선 오래. 그래서 가서 만났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린카드가 있느냐, 영주권이 있느냐” 이거지 그린카드 그때는 내가 뭐냐 유명한 러시아의 스타도 아닌데

조주현

31:15

바리시니코프도 아니고 누리에프도 아니고

김혜식

31:17

유니온이 있기 때문에 발레단 유니온이 있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다는 거야.

영주권이나 뭐가 있어야 오디션을 뽑지 그렇지 않으면 뽑지 못한 못한대.

일단 너무 미안하니까 다른 데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그냥 말로 하고 왔어.

그러고 왔는데

김혜식

31:42

이제 발레 클래스 택하러 갔거든. ABT 거기. 그랬더니 거기 벽지에 르그랑 발레단이 오디션이 있다고 크게 써붙였어.

그랬더니 이 마담 펠리야스 “오 혜식, That Ballet단 very good for you. Why don't you try?”

김혜식

32:06

그래 갖고는 시티 센터 거기

조주현

32:08

뉴욕시티센터

김혜식

32:10

뉴욕, 연습실 거기 가서 오디션을 했지.

조주현

32:17

그래서 발탁이 되셨군요.

김혜식

32:19

한 200명 왔어. 그래갖고 뭐 수업을 하는데 수업하는데 내가 빨리 어떤 건 못하니까 잊어버리고 틀리고 그랬지.

그런데도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당당하고 그 발레 미스트리스하고 부단장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나는 이제 짐 싸갖고 가려고 그러니 이제 부르더라고 그 아나운서(발표) 할 때 우리가 한 주일 후에 연락을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부르더라고 그랬더니 날 보고 있다가 “이따 5시에 자기네가 우리 호텔에 있으니까 와라.”

그래서 갔어.

참석자 4

33:07

네

김혜식

33:08

그랬더니 이제 컨택됐다는 거야. 내가 컨택이. 그래, 그래 갖고는

조주현

33:16

그래서 가시게 되셨구나.

김혜식

33:18

그때 그때그때. 아, 서울 예고 나온 후배가 있었어.

임 선생님한테 다니고. 이제 그 집안이 브라질로 이민 갔다가 이제 갔는데 애가 그때 뉴욕에 와 있어서 내가 만나서 개가 있는 그 집에 같이 있었어.

조주현

33:37

네

김혜식

33:38

내가 뉴욕에... 이제 호텔에 너무 비싸니까 오래 있을 수 없지.

그래 갖고는 거기서 한 달도 안 기다렸어. 한 2주 기다렸나? 그래갖고는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된 거지.

조주현

33:53

가셔서 가셔서

김혜식

33:57

캐나다는 그때는 가서 내가 두 달인가 얼마 되니 영주권을 해줬어.

영주권 반환 그래갖고 컴패니에 이제 들어갔는데. 가면서 이제 나를 이제 세미 솔로이스트로.

조주현

34:14

처음부터요.

김혜식

34:16

처음부터 세이 솔로이스트

조주현

34:19

정말 정말로 훌륭한 발레단에 단장님이 정말 실력을 인정해 주셨네요.

김혜식

34:25

그리고 내가 왜 거기 또 마음이 더 들었냐면. 내가 주릭 발레단에 주릭에 있을 때 이 르그랑 발레단이 오케스트라 싱어 무용수 해갖고 그때 카르미나 브라나 공연을 했어.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저 발레단에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을 했는데 바로 간 게 이 발레단이에요.

조주현

34:52

그때 인상 깊게 본 카르미나 브라나가 이 르그랑 그게 이 르그랑 발레단...

김혜식

35:02

오케스트라 멤버 싱어 무용수 대단했어. 그래 갖고는 이제 캐나다 간 거지. 근데 너무 캐나다에서도 캐나다는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무용수들도 그렇고 마음이 아주 나는 정말 행복했어.

조주현

36:16

저희 그래서 나 목소리 잘 들리시죠 캐나다에서 이제 르그랑 발레단에서 타미라는 원장님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탐이었나

김혜식

36:36

타미, 그게 내가 가장 히트야 히트 자기야

조주현

36:43

원장님을 스타덤에 오르게 만든 그런 작품인 거죠.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김혜식  
36:48  
그거 외에도

김혜식  
36:50  
뭐.. 뭐지... 다른 그러니까

조주현  
36:58  
오르키, 오르키

김혜식  
37:00  
여기 맞아 오르키. 오르키 있고. 또 뭐냐 내 저기 사진에 있는 거.

조주현  
37:11  
저기 사진 있어요. 근데 원장님 원장님 그 카톡에 카톡에 왜 머리를 이렇게 짝 올리고  
도발적으로 찍은 사진은 어떤 거예요? 원장님 카톡에 올리신 사진. 머리 막 짝 올리고.

참석자 7  
37:28  
도발적인

조주현  
37:29  
그게 오르키예요. 그게 대단하셨다라고 예

김혜식  
37:35  
내가 오르키는 그러니까 하나의 천사나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양 성격이 달라. 아무튼 그것은

내가 굉장히 뭐냐 호평을 많이 받았어.

조주현

37:59

그런데 그거...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특히

김혜식

38:04

특히 우리가 그러니까 록발레를 처음으로 만들었잖아.

조주현

38:10

록발레구나 음악이 락음악을 썼어요. 이때

김혜식

38:15

그래

조주현

38:18

획기적이었는데

김혜식

38:20

그 그거 나 레코드가 그냥 있다. 한 번도 안 튼 거 내가 이거 사놨어.

근데 들을 수가 있어야지

조주현

38:29

갖고 오세요. 오실 때 그래서 저희 그걸로 이제 들어서 그 아카이빙에 넣어야 되겠어. 타미 해서. 발레 락 해서.

김혜식

38:39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나를 우리 컴패니에서 이제 오프닝 할 때 나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그게 록발레, 그러니까 움직인가 뭐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 다 클래식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이제 토 신고 아무튼. 근데 나 그렇게 되면은 컴패니는 어찌고 뭐 뭐야 어떻게 내 평은 또 나잖아.

조주현

39:09

그렇죠 주역이니

김혜식

39:10

코리안 코리안

조주현

39:12

조그마한 코리아 뭐라고 나요?

김혜식

39:15

잘 했다고 있어 여기 영어로 된 거 있어.

조주현

39:20

저희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있는 거를 저희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혜식

39:26

그래 그 평난 거?

조주현

39:29

저기 타미 했을 때

김혜식

39:31

뉴욕에서 할 때 뭐냐 이렇게 타미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사진이 아무튼.

### 3. 생애사2 : 활동기 (1966-2011)

#### 주제사2 : 여성예술가로서의 삶

조주현

39:46

원장님 그래서 완전히 화려하게 하고 계실 때 사부님 만나신 거죠

김혜식

39:52

그렇지

김혜식

40:01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있는 선배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는 이제 그때 뭐 30살이 넘고 아프고 어찌고 그래서 나는 절대 30살 넘어서까지는 안 하겠다.

내가 정말 젊고 그럴 때 팔팔할 때 하고 이제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내가 이제 30살이 되니까 캐나다에 계신 우리 무역관장 댁에도 가서 밥 먹고 그러면은 나를 걱정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다 할 텐데 그러면서 나는 그냥 듣고 이렇게 웃고 말았는데 그렇지만 내 속으로는 나도 이거 빨리 또 너무 올드미스가 되면 어떡하나 하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하는데 우리 오빠가 오빠가 지금 현재 박사님 남편이랑 오빠가 오빠의 친구가 프레즐러 대학에서

김혜식

41:10

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박사님 집에 이제 혼자 계시니까 이제 몇 명이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랬나 봐.

그러면서 제가 잘하는 누님이 있는데 좀 한번 아주 만나보시라고 그랬나 봐.

근데 오빠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나한테 얘기한 거야.

김혜식

41:32

학력은 어땠고 교수고 이제 집안 다 알아봤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 비즈니스 맨하고는 결혼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

내가 교수하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때도 내가 뭐 비즈니스하고 이런 사람이면 했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발레할 때까지는 절대. 그래갖고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겠다.

김혜식

42:02

그래서 오빠가 비행기표도 이렇게 해서 이제 박사님한테 하고. 박사님도 사진 이렇게 보니까 뭐 괜찮았나 보지?

조주현

42:12

아니 그때 저

김혜식

42:13

발레를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현

42:15

그때 박사님 이제 사부님이 원장님을 사진으로 만난 거예요.

사진으로 본 거예요. 사진 보고 이 여성 만나고 싶다 이 생각을 하신가요?

김혜식

42:26

그래갖고 캐나다에. 이제 원래는 그 스프링 브레이크가 있어서 내가 봄에 뉴욕에 공연할 때 만나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공연하고 뭐 이런 사람 이제 그때는 이제 건방질 줄 알았겠지. 내가 아니다. 내가 공연하는 거 보면 안 되고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또 캔슬하고 끝나고 나서 방학 때 몬트리올에 오신 거야.

나 보러

조주현

42:59

박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소개팅을 몬트리올로 해서 하셨네.

소개팅을 몬트리올로 해서 하셨네요.

김혜식

43:08

몬트리올, 몬트리올. 오셨어 그랬더니 내가 그때 막 리허설 끝나고 내 머리 그때는 이제 허리까지 왔거든.

막 연습 끝나고 막 머리가 막 쪽 붙고 그리고 있는 옷도 그때는 말랐는데 딱 붙고. 내가 또 노란 거에 딱 붙는 거 입고.

조주현

43:27

노란색 입으셨어요? 노란색?

김혜식

43:33

비행장에 나왔지. 내가 뭘지 그랬더니 이제 농담인지 진담인지 몰라서 너무 마르고 머리가 그래서 뒤로 돌아갈까 했대.

그 아무튼 그래, 그래 갖고는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몬트리올 거기서 이제 호텔 거기서 잡아갖고 이제 주무시고 이제 밥도 가서 먹고 서로 얘기해보고 그러니까는 박사님도 캐나다 캐나다에서 박사하셨고 그러니까 유럽에 또 가 계셨고 또 그러니까 그게 좀 비슷해. 외국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게 맞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면 괜찮겠다 했대.

마음이 착하고 몰라 그래 그거는 어머 근데 그 여름에 박사님 만나기 전에 그 여름에 존 버틀러, 한번 찾아봐. 유명해 존 버틀러. 그분이 유명했어. 컨템포러리.

조주현

46:33

네 그쪽이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기계라기보다는 미국의 이제 와이파이라고 연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저희 끊어진 데가 존 버 버 그분이 이제 원장님을 주역으로 발탁하신 거죠.

김혜식

46:53

그래 그래갖고 안무를 다 이려고는 나는 이제 그만 결혼 이제 학생님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해야 돼.

박사님이 만나봤지 와갖고 내가 소개해갖고. 그랬더니 단장님이 마담 슈라이에프예요.

그분도 러시아분이고 그리고 페르난도. 그분은 ABT에서 오래 계셨고 그분이 이제 아티스틱 디렉터고 마담 슈라이프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은 “네가 뭘데 중간에 가” 이려고 소리 지를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결혼하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그러나 네가 가서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 다시 와라.”

나한테 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 마담 슈라이에프가.

조주현

47:55

정말 열려... 잘 들리죠. 무슨 말인지 알죠

김혜식

47:59

그래 감동받았어.

조주현

48:01

근데 저는 원장님이 더 신기해요. 그렇게 전성기로 발레리나로 하고 있는데. 결혼을 그렇게 결심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그만두기 쉽지 않잖아요.

김혜식

48:16

힘들지. 근데 박사님은 이거야. 자기는 결혼해서는 내가 밤에 공연하러 어디 가야 돼. 그러면 자기는 그런 건 싫다.

그러니까 하우스 와이프. 그래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러면 한번. 근데 그때 내가 박사님 이제 마음에 들고 그런 남자 어디서 찾냐. 그래서 그래서 이게 결단을 한 거야.

정말 빨리 결정을 했지.

조주현

48:48

박사님 말씀이 맞네요. 원장님이 박사님한테 반했네.

김혜식

48:53

맞아. 맞아.

조주현

48:59

근데 지금은 박사님이 원장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김혜식

49:03

박사님한테 얘기 안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보따리 싸, 여보 지금 그래 보따리 싸갖고 올 때는 언제고.

조주현

49:15

그러니까 제가 무용수로 살면서 원장님의 입장에서 정말 발레를 그 당시에 그만두고 박사님하고 결혼하실 정도면 박사님에 대한 마음이 원장님 마음이 어떠신지가 딱 이해가 돼요.

정말 대단한 운명인 것 같아요. 진짜.

김혜식

49:33

맞아 그러니까 박사님도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안 됐었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이제 방금 집에서 그 때부터 내가 이거, 이거 크로세 이거 이거도, 뜨개질도 하고 그랬거든.

조주현

49:49

이제 발레를 다 무대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그만두고 뜨개질만 하고 계셨군요.  
집에서.

김혜식

49:55

그러니까 어머 내가 반찬을 할 줄 아냐, 뭘 할 줄 아니.

조주현

50:00

음식도 못하시고

김혜식

50:04

박사님이 다 가르쳐줘서 했어. 그리고 아무튼 그런데 프레즈노에 이제 대학에 프레즈노가 이제 LA같이 큰 도시는 아니잖아.

근데 거기도 프레즈노 너 알잖아 프레즈노 시빅 발레 미국의 각 도시 발레단 프로는 아니고

조주현

50:27

혹시 주릭 발레단처럼 만든 건가

김혜식

50:30

나와 달라 그러고 또 어디 피가든 대 수수 뭐 이런 데서 또 한 번만 가르쳐달라.

한 번 와달라. 사실 나는 발레를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안 가리킬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프레즈노 대학에서 또 나와서 가르쳐달라.

그래서 프레즈노 대학도 나가고

김혜식

54:49

내가 국립발레단 가니까 어머 그 연습실 그 큰 거야.

바닥도 엉망이지 tv도 우리 집에서 보는 텔레비전만한 거 하나 있지.

그래서 내가 된 얘기냐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플로우 다 바뀌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후원회가 필요해야 되잖아.

참석자 7

55:13

그렇지. 돈이

김혜식

55:14

최초로 내가 한국에서 후원을 받는 거 아니니?

조주현

55:18



근데 그 후원회...

김혜식

55:20

내가 가서 극장장하고 많이 싸웠어.

조주현

55:26

뭘로 주로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싸우신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거 극장장하고 싸운 것 중에서

김혜식

55:33

많이 싸웠다. 내가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러는 거야.

이 단정을 뭘로 봐. 근데 그때 시대 거기에 단장들은 극장장한테 찢찢 매는 거야.

왜 그 자리에 붙어 있으려고 그랬겠지. oh my gosh.

김혜식

55:52

내가 이거 하는 거 못하면 나는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김혜식

55:57

내 것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원회도 만들고 다행히 그때 또 운이 좋은 게 후원회를 만들 때 박사님 동기 동창 옛날 사람들이 다 은행장이 5명인가 있었다. 그리고 다 그래갖고 후원회를 빨리 만든 거 아니야 한 달 만에 만들었어.

조주현

56:20

원장님이 그 발레단에서 극장장님하고 싸우신 거는 왜 어떤 일로 주로 싸우셨어요?

김혜식

56:27

왜 싸웠냐고.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하니까 뭐를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올 때 막 문 발길에 차고 나왔다.

김혜식

56:42

박사님이 방학 때 나와서 이제 극장에 극장장 만나면 내 얘기를 막 하더라.  
그 김혜식 단장이 대단하다고 그러더라. 내가 별짓을 다 했어.  
거기서 결국은 단원들이 가서 아르바이트 하기 때문에 수업만 학원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공연도  
얼마 없었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발레단이.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 다 못하게 했잖아.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나셨다. 서울신문에 (조주현 : 뭐라고 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뭐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후원을 만들어서 돈을 공연 끝나면 돈 주고 공연하기 전에 토시도  
이것도 다 사게끔 해주고. 그래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날에 국립발레단이 오늘 이세웅  
사장님도 그렇잖아.  
박사님 나하고 설득을 시켜서 “국립발레단 도와주셔야 된다.”  
돈이 있어야지. 공연을 하려면은. 내가 너무 고생했어.  
그때

조주현

57:52

후원해 줘 주고 근데 우리

김혜식

57:54

후원회 회장님이 내가 나뵈야 대를 해야 되는데 외국에 은행 보니까 거기 회의 가셨어.  
그때 돈이 15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 튀튀(tutu) 만드는데.  
근데 그 돈을 후원회 회장 돈 꺼낼 때는 나하고 회장님하고 사인을 해야 돈이 나오는데.  
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떡해. 그럼 내가 혼자 사인해서 꺼냈지. 그랬더니 윤 회장님이야.  
오셔갖고 박사님한테 전화 해가지고 “야 느그 와이프가 이거 돈 다 꺼냈다.”  
그래서 그래, 그래 막 화를 내더라.

조주현

58:39

절차를 밟지 않으셨다고 화를 내셨는데

김혜식

58:42

“돈이 필요하니까 썼죠.” 그랬지. 내가 그래갖고는 박사님한테 전화 해가지고 하소연을 했나 봐. 그랬더니 “야 너는 뭐라 그래도 내 와이프 편이다.” 그랬대.

조주현

58:54

원장님. 근데

김혜식

58:56

그래서 그런 일이 다 있었어.

조주현

58:58

그때 에피소드 그때 에피소드가 후원회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때 윤병철 하나은행 은행장님도 제가 기억이 나고

김혜식

59:06

강신호 회장님. 지금 서울시장

조주현

59:10

오세훈 시장님도 시장님도 하시면서 그때

김혜식

59:14

국회의원 국회의원 또 누구더라

조주현

59:17

그때 해적 공연하면서 출연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출연시키셨어요?

김혜식

59:25

그거 아마 있을 거야. 영상.

조주현

59:32

아니 어떻게 출연 제의를 하셨어요? 즐거워 그분들한테 출연 제의를 어떻게 하셨어요?

김혜식

59:39

출연비. 그거 정부에서 주는 출연비인데. 노란 봉투에, 노란 봉투에 3만 원이야. 3만 원, 3만 원씩 강신호 회장님 동아제약. 그분한테도 3만 원을 보냈나 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고하셨다고 갔더니 그걸 딱 꺼내주시면서 “나는 이거는 정말 하나의 귀중한

조주현

1:00:05

그치

김혜식

1:00:06

이걸 내가 꼭 보관해야 된다.” 면서 그 서랍에 그러시더라고.

3만원.

조주현

1:00:12

출연하시고는 어떤 얘기 없으셨어요? 근데 출연하셨던 오세훈 시장님도 출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리고 강신호 회장님도 출연하셨는데 출연하시고는 소감이 어떠셨어요? 느낌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김혜식

1:00:29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셨대. 뭘 해야 되는지

조주현

1:00:34

어렵지. 무대에 서면

김혜식

1:00:36

너무 행복하셨어. 너무 행복하셨어.

조주현

1:00:39

무대에 서는 게 대단하세요. 진짜

김혜식

1:00:42

윤병철 회장님도 똑같았고. 회장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김공수 지도위원이지 김은수 교수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올리고.

조주현

1:00:56

근데 너무 요즘.

김혜식

1:00:59

재미있었다.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어.

조주현

1:01:02

원장님 혹시 발레단 이렇게 이제 단장님으로 계시면서 올리신 작품 중에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작품 있으세요?

김혜식

1:01:12

기억에 남는 작품?

조주현

1:01:14

발레단에서 올리신 작품 중에서

김혜식

1:01:17

해적.

조주현

1:01:20

해적. 해적을 이제 처음으로 이게 레퍼티터가 와서 또 발레단에

김혜식

1:01:28

그러니까 내가 한국의 국립발레단의 목적을 왜 왔냐면 나는 꼭 국립발레단을 뉴욕의 abt와 같은 그런 레퍼토리로 하겠다.

스토리텔링, 컨템퍼러리 유명한 내가 ABT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왔는데 갔는데. 세상에 관리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발레단도 학교 만들었잖아.

조주현

1:01:59

그렇죠. 문화학교를 만들어 문화학교를 만드셨잖아요.

김혜식

1:02:03

문화학교 만들었잖아 그랬다.

4. 생애사2 : 활동기 (1966-2011)

주제사3 : 교육자로서의 삶

조주현

52:29

프레즈노에서는 제자들을 많이 기르셨잖아요. 프레즈노에서. 누가 있지?

김혜식

52:36

제자들 많이 길렀다. 나 때문에 프레즈노 대학에, 프레즈노 대학에 학생들이 많이 왔어.  
전공하는 학생들 그래서 크리스토퍼 도일도 내가 키웠잖아.

조주현

52:47

그러니까요. 크리스토퍼 도일도 그랬고 또 누가 있지?

김혜식

52:52

내가 프로로 몇 명 보냈어 대학에서.

조주현

52:56

그래서 원장님 그거 나오지 않으셨어요? 댄서스 티처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그 잡지

김혜식

53:05

그 잡지도 없어졌어. 어디갔는지.

조주현

53:07

그건 너무 중요한 잡지인데 없어지면 어떡해요.

김혜식

53:14

댄서스 티처스 아메리카에 내 이름을 넣고 부탁하면 찾아줄 거야.

조주현

53:18

네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김혜식

53:21

그래

김혜식

1:03:17

그랬더니 또 이화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어머 그래 그랬더니 또 박사님은 그래도 이대를 나왔으니까 이대 가서 한번 하는 것도 좋고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지.

나는 영재, 그러니까 젊은 애들 발레단 보니까 다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그 나이 먹어서 오니까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한계가 왔어. 그래서 내가 이거 영재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조기 교육을 못 받은 게 한이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이대도 사인을 했지 총장님이 막 그래서 또 가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해갖고 이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발레단 단장으로 있으면서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한예종 무용원이 생긴다고 또 이강숙 총장님이 영 이진용 그때는 사무국장인가 뭐지

조주현

1:04:30

교학처장님이실 수 있어요.

김혜식

1:04:32

이진용 선생님을 나한테 또 보내셔갖고 총장님이 날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강숙 총장님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냐. (조주현 : 그쵸) 나도 영재 내가 영재하는 게 나도 소원이었는데 지금 이대 사인해놨지.

국립발레단도 그렇지 그래갖고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

또 세 군데 어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 언니하고 점까지 보러 갔어.

어딜 가야 돼 언니가 “야 가서 한번 봐라.” 어디가 좋 그랬더니 다 좋대.

그런데 한 군데만 가야지. 어떻게 다 좋아. 그래갖고 이대 총장님이 눈물까지 흘리셨다.

내가 그만둔다. 그래갖고 근데 극장장은 “아이고 김혜식 단장 이제 국립발레단 궤도에



올려놨는데 뭐 간다고 그랬습니까?” 발레단 하러 갔지 뭐 하러 왔냐고 나한테 또 그랬어.

조주현

1:05:44

다 잡으시네. 이제는

김혜식

1:05:47

그래서 어머 근데 또 이강숙 총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아무튼 내가 우리 남편은 이화대학 나오고 그랬는데 한번 그랬더니 남편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래. 또 박사님한테 통화를 했지 그랬더니. 아.

김혜식

1:06:06

이강숙 총장님이. 그랬더니 본인은, 박사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결정 짓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끊으셨어.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영재 교육이지.

그래서 그냥 한예종으로 가는 걸로 한 거야. 오늘날의 한예종으로. 그러니까 나는 국립발레단 하러 왔다 해서 욕 먹고 이화대학 교수로 간다 할 때 욕 먹고.

조주현

1:06:38

이 한예종이 복 받았네요. 그런 분을 이제 모실 수 있어서

김혜식

1:06:43

힘들었어.

조주현

1:06:46

그렇게 결정해서

김혜식

1:06:48

행복해. 젊은 무용수들이 지금 우리나라 야 보니까

김혜식

1:06:53

국제 콩쿠르를

김혜식

1:06:55

음악은 나가서 상 타면 면제 군대 면제가 되는데. 발레가 해야 되는데 왜 없어. 그래서 군대 면제되는 거를 내가 그거 한 거야.

조주현

1:07:09

원장님이 처음 시작하셨어요?

김혜식

1:07:13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된다. 나이 먹고는 아니다.  
군대 갔다 와서는 못한다. 그래갖고 그게 그때 힘들었어.

조주현

1:07:23

원장님 그때 처음에는 무용은 병역 혜택이 없었어요?

김혜식

1:07:30

없었지.

조주현

1:07:31

진짜요?

김혜식

1:07:32

특혜는 없었지.

조주현

1:07:34

그래서 음악은, 음악은 있는 건 제가 알겠는데 병역 혜택이 음악이 있었지 무용은 없었던 가요?

김혜식

1:07:42

없었어, 없었어.

조주현

1:07:43

생긴 지 얼마 안 되네요. 무용이

김혜식

1:07:47

없었어

조주현

1:07:48

원장님 누구 어떻게 병무청에 가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김혜식

1:07:53

병무청이고 또 뭐냐 국방부 이런 데. 그리고 매스컴에도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조주현

1:08:04

그래서 만드셨군요. 병역 무용도 병역 혜택의 사례가 있어야 된다

김혜식

1:08:10

없어. 내가 설명한 거는 무용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무용은 이 신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그렇잖아.

김혜식

1:08:27

그래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면제시켰는데. 또 영재 또 지금 저 무용은, 무용원에는 정말 영재 아니냐 그러니까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는 영재들만 가는 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또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도 군대 면제가 된 게 나 때문에 된 거야.  
라리사랑 러시아 내가 어디야 바르나 심사 갔을 때 국제 콩쿨 러시아 이쪽 사람들이 다 왔어.  
거기서 내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없다.  
그리고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가 이게 지금 생겼는데 정말 탈렌트 한 애들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뽑히면은 군대 면제를 시키는 걸 해달라.”  
그래서 라리사도 오케이 했고, 정부에서도 오케이를 한 거야.

조주현

1:09:22

원장님이 처음에 이제 무용원이 이제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해서 오셨을 때 가장 이 학교에는 뭘 해줘야 되겠다 뭐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셨어요?  
뭘

김혜식

1:09:37

내가 뭐가 필요했냐고

조주현

1:09:39

어떤 거를 해줘야 되겠다. 애들 무용원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다.

김혜식

1:09:47

탈렌트 한 애들을 뽑아야지

조주현

1:09:50

그리고 국제 콩쿨 정말 많이 내보내신 것 같아요. 국제 콩쿨을 정말 많이 내보내신 것 같아요.

김혜식

1:09:58

맞아 내가 그래서 그때 무용원을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러니까 애가 고등학교라는 거야. 엄마들이. 고등학교인데 왜 고등학교, 대학이라고 이름이 없잖아. 그래서 또 그때 국립극장 거기서 설명회를 했지, 내가. 엄마들이 왔어.

그때 1회 졸업생 엄마, 이 발레하는 엄마들이 무용하는 엄마들이 왔어.

그래서 그때 내가

김혜식

1:10:33

그 설명을 했지. “본인의 따님이나 아들이 정말 발레리노 발레리나가 되려면 여기 와야 된다.”

김혜식

1:10:47

“일반 대학 교육의 교육 과정 갖고는 힘들다. 나도 나도 경험을 했지만 힘들니까 저를 믿고 오세요.”

그래서 애들을 보낸 거야. 그때.

김혜식

1:25:03

아무튼 물론 나도 나는 그때 정말 내가 좋은 교육받는 게 꿈이었거든.

지금 아이들 받는 거. 그랬으면 내가 박사님한테 “여보 내가 그랬으면 아주 세계적인 무용수가 됐을걸” 그랬지.

조주현

1:25:18

아 원장님 라스베가스 좋으세요? 어떠세요? 라스베가스 좋으세요? 어떠세요?

김혜식

1:25:26

여기 라스베가스 사는 건 너무 편한데 외로워.

참석자 5

1:25:31

그리고

김혜식

1:25:33

한국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뭐 하는 것도 좋은데 바깥에서 활동 잘하고 있으니까 박사님이 이제 한국 비행기 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박사님은 여기가 좋으시대, 미국이. 미국에 사는 게 편하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근데 이제 너무 한가하니까 뭘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겠어, 뭘 하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건강하게 매일 먹는 거 잘 먹고 그리고 있어.

조주현

1:26:12

한국은 원장님 사실은 당연히 이렇게 한국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보고 싶으세요?

김혜식

1:26:21

한국에서?

조주현

1:26:22

어떤 걸 제일 보고 싶으세요? 한국 나오시면.

김혜식

1:26:26

화학 나가면서 발레지, 뭐.

조주현

1:26:29

발레 밖에. 한예종하고 발레 보고 제일 보고 싶으시구나

김혜식

1:26:34

보고 싶은 거 많아. 너희들 가르치는 것도 보고 싶고. 국립발레단도 보고 싶고 그래 UBC도 갔지? 우리 애들이 갔지?

조주현

1:26:45

그렇죠 많죠. 지금 주역이 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죠.  
그게 원장님이 뿌린 씨앗이세요.

김혜식

1:26:52

UBC도 잘 돼야 될 텐데, 참.

조주현

1:26:56

원장님이 나오셔서

조주현

1:27:00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와서 이제 보시고 또 저희가 또 어디 그다음으로 가야 할  
곳을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혜식

1:27:11

그렇지

조주현

1:27:13

오셔야 돼요. 한번

김혜식

1:27:15

그래 한번 이제 방문을 해야지 한번 가야지.

김혜식

1:27:19

박사님한테 내가 뭐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게 좋아. 근데 박사님은 아니라니까 어떡하니

조주현

1:27:26

이 짝사랑은 진짜 완전히 사부님에 대한 사랑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김혜식

1:27:33

그래그래.